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셋째주 일요일 11 시 : 추석기도 법회
 매주 둘째주 화요일 5 시: 어린이 참선 법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 시 - 오후 1 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새벽기도: 아침 6 시 30 분 - 7 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부다나라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g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고,
 할 일을 게을리 하는,
 인생의 참 목적을 잊은,
 그래서 잠깐 지나는 즐거움에 빠지는 사람,
 깊은 명상에 들어 있는
 지혜있는 사람 부러워 할 것이라네.

He who does what should not be done and
 falls to do what should be done, who forgets
 the true aim of life and sinks into transient
 pleasures - he will one day envy the man who
 lives in high contemplation.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0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2010 경인년 총림 방장 하안거 해제 법어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해 영축총림 통도사, 조계총림 송광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등 전국 5대 총림 방장스님들이 지난 24일 불기 2554년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일제히 법어를 발표했다. 전국 104개 한국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선원에서 경인년 하안거 결제에 든 대중은 총 2257명이다. 해제기간에도 쉼 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방장 스님들의 법어 전문을 게재한다.

“산문 나선 남자 걸음걸음 근본 살피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

수진험도귀해벽(水盡險途歸海碧)이요 / 물은 굽이굽이 거쳐서 넓고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도경다일득추황(稻經多日得秋黃)이라 / 벼이삭도 여러 날 햇볕을 견뎌야 가을에 누렇게 익네.
차암종고무여물(此庵從古無餘物)하니 / 이곳엔 옛부터 다른 물건은 하나도 없고
송죽연천일색장(松竹連天一色長)이로다. / 송죽만 하늘과 맞닿아 일색으로 푸르구나.
오늘은 모두가 해제(解制)날 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고인이 말하기를 “애초에 묶어 놓은 적도 없는데 오늘 무엇을 풀려고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야 할 것입니다. 범부와 성인을 뛰어넘는 근본 도리를 밝혀보려고 모두들 한 철을 두문불출하고 애를 썼습니다. 나름 약간의 성취도 있었겠지만 과연 깊이 했었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곧바로 바다 속에 들어가 험껏 물질을 해 보아야지 억새꽃이 얇은 물에 급히 흘러가는 것에 속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구정녕한 경책의 말씀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 말씀 한 마디만으로도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공부가 조금 수월해지고 진보한 듯해도 그것은 아직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조금 애쓰다 놓아버리면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게 됩니다.

고인의 말씀처럼 혼신을 다해 깊숙이 살피서 넓고 큰 바다가 되어야지 얇은 물처럼 소리만 요란해서는 안 됩니다. 산문을 나서는 남자는 걸음걸음이 근본을 살피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산 아래 길을 알고 싶으면 지나온 사람에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무수한 난관을 지나 온 이에게 물어서 거둬 헤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선지식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시해 줄 것입니다. 해제는 자신의 막힌 곳을 선지식에게 묻고 골똘히 해서 명철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한 철 동안 애쓴 것이 헛되지 않게 운수남자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와서 다시 한 바탕 애를 써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무사한(無事漢)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일견하납임풍진(一肩霞衲任風塵)이여 / 어깨에 누더기 걸치고 풍진에 내 맡김이여!
정정공부불시진(定靜工夫不是眞)이라 / 고요한 곳의 공부는 진실하다 할 수 없네.
호혈마궁수처락(虎穴魔宮隨處樂)하니 / 호혈과 마궁에서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야
소요천지작한인(逍遙天地作閑人)이로다. / 천지를 소요하는 한가로운 이라 하리라.

“방심 말고 回小向大 정신으로 향상하길”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이렇게 더운 여름 석 달 동안 조계총림(曹溪叢林) 안거대중(安居大衆)이 건강(健康)하게 정진(精進)하고 오늘 해제(解制)하게 되는데 대(對)하여 산승(山僧)은 참으로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해제(解制)했다고 해서 방심(放心)하지 말고 회소향대(回小向大)의 정신(精神)으로 더욱 향상(向上)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도 덥고 해서 가장 쉬운 법문(法門)을 한마디 할까합니다.

옛날 당(唐)나라 때 백낙천(白樂天)이라는 신심(信心)이 지극(至極)하고 벼슬이 높은 거사(居士)가 있었는데 그 당시(當時)에 조과도림화상(鳥道林和尚)이라는 대선지식(大善知識)이 계셨습니다. 거사가 찾아가서 만나니 나무 위에 까치집 같은 곳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거사, “스님은 왜 그렇게 위태로운 곳에 살고 계십니까?”

화상, “나는 거사가 더 위태로워 보입니다.”

거사, “왜 그렇습니까?”

화상, “거사는 언제 죽을지, 지금 누리고 있는 벼슬자리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사, “어떤 것이 불법(佛法)입니까?”

화상, “제악(諸惡)을 막작(莫作)하고 중선(衆善)을 봉행(奉行)하라.

모든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착한 일만 하라.”

거사, “스님 법문은 어린 아이도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화상, “어린 아이도 다 알고 있지만 팔십노인(八十老人)도 실천(實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사는 그 자리에서 발심(發心)했다고 합니다.

대중(大衆)은 아무리 발심했다고 하지만 미세혹(微細惑)이 남아 있는 한(限), 언제 경계(境界)를 만나서 마음이 흔들릴지 장담(壯談)할 수 없습니다.

발심유여연근단(發心猶如蓮根斷)이나 / 비록 발심하는 것은 연뿌리를 자르는 것보다도 같지만
우사환여 미세혹(藕絲還如 微細惑)이라. / 도리어 미세혹은 연실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네.

평시항여무심인(平時恒如無心人)이나 / 보통 때에는 무심한 도인 같지만

대경생심 자불지(對境生心 自不知)로다. /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알지 못함이로다.

목여야생아(木女夜生兒)하니 / 나무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삼두겸사미(三頭兼四尾)로다. / 머리는 셋이요 꼬리는 넷이로다.

주장자(拄杖子)를 세 번 구르고 하좌(下座)하다.

=====

“懸崖撒手하는 결단으로 공부해야”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정진(精進)하여 생사(生死)의 명근(命根)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다겁생(多劫生)에 탁업(濁業)으로 인하여 심성(心性)을 발현(發顯)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다. 굳은 의지(意志)와 발심(發心)이 전제됨은 물론 극기(克己)와 자제(自制), 인고(忍苦)의 노력(勞力)이 없이는 고집(苦集)을 깨뜨릴 수가 없다.

화두일념(話頭一念)이 되어 앞생각 뒷생각이 끊어지고, 동(動)과 정(靜)에도 한결 같으며, 잠잘 때나 깨어서나 또한 한결 같아서, 분별망상이 꺼지고 고요하고 맑아서 뚜렷하고 분명할지라도 화두를 놓아서는 안된다. 설사 견처(見處)가 생기더라도 이것으로 화두를 놔서는 더욱 안된다. 이 때야 말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진일보(進一步)하는 큰 용기와 현애살수(懸崖撒手)하는 결단으로 힘써 공부(工夫)해야 된다.

참학자(參學者)들이 정진하다가 조그마한 견처(見處)나 성력처(省力處)가 생기게 되면 공부가 다 된 양 착각하고 아는 소리나 하면서 정진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마치 익지 않은 곡식을 뽑아서 밥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처(用處)가 없을 뿐 아니라 허다히 목전(目前)의 경계(境界)에 휘둘러 주인 노릇을 못하고 세월이 가면 조금 생겼던 정력(定力)마저도 업력(業力)을 이기지 못하여 마(魔)의 부림을 당하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러서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게 되는 허망(虛妄)한 처지(處地)가 되는 것이다.

입지여산결정신(立志如山決定信) / 입지를 산 같이하여 결정신을 가지고
유여주마갱가편(猶如走馬更加鞭) /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듯 하라
현애살수번신전(懸崖撒手身轉) / 벼랑에서 손을 놓듯이 몸을 한번 뒤집으면
통천철지골모한(通天徹地骨毛寒) / 하늘과 땅이 사무치도록 모골이 차가우리라.

공부를 하여도 잘 알고 정진해야 된다. 참선(參禪)에 세 가지 사선(邪禪)이 있는데, 첫째가 암중선(暗中禪), 부처님의 경전이나 조사들의 말씀은 다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금옥(金玉) 같은 것인데, 경전이나 조사들의 어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선지식의 법문도 듣지 아니하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 모르기 쉽다. 이렇듯 불경이나 선지식에게 점검하지 아니한 채로 덮어놓고 하는 공부가 암중선이다.

불조(佛祖)의 가르침에는 진여자성(眞如自性)을 찾아가는 방법(方法)과 증명(證明)해가는 과정(過程)을 우리에게 극명(克明)하게 밝혀 놓았는데도 불조(佛祖)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않고, 선지식의 탁마도 받지 않은 채 하는 공부가 암중사선(暗中邪禪)이다.

둘째는 문자선(文字禪)인데 이것은 실참실수(實參實修) 하지 않고 그저 불경(佛經)이나 조사어록(祖師語錄)을 보고 익혀서 불법을 다 아는 양 거들먹거리는 것이다. 아는 지식 때문에 오만하기 짝이 없고 사부중(四部衆)을 무시하기도 하는데, 불법은 아는 지식(知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수행 정진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세지변총(世智辯聰)을 경계하셨다. 실제로 정진은 아니하고 입으로만 털어 버리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선정(禪定) 없는 지식(知識)은 다 허무(虛無)한 것이다.

셋째는 야호선(野狐禪)인데 이것이야말로 흑세무민(惑世誣民)하고 사람을 속이는 여우 짓인데, 절집 안에 이런 사람 더러 있으니, 정진력도 없는 자들이 다른 이의 대접이나 받고 이양(利養)을 챙기기 위하여 도인행세(道人行世)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을 일러 고인(古人)들은 여우처럼 간교한 자들이며, 풀에나 나무에 붙어사는 도깨비 같고, 지옥의 찌꺼기들이라 했다.

정진(精進)은 진실로 자기(自己) 자신(自身)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애써 정진하게 되면 생사(生死)의 명근(命根)이 다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의단타파허공전(疑團打破虛空轉) / 의심덩이를 쳐부수어 허공을 굴리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까”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종스님

일찍이 명나라 왕양명 선생은 노래했습니다.

아생초곡군지부(兒生初哭君知否) / 간난아이 처음 날 때 우는 소식 그대는 아는가

일락인간만종수(一落人間萬種愁) / 한번 인간 세상 떨어지면 만가지 근심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삶은 생(生)과 사(死) 이 두 글자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죽음이 있는 삶은 허망하기 때문에 괴롭고 삶이 있는 죽음은 애착이 있기로 괴롭습니다. 삶과 죽음의 모순을 안고 사는 우리들의 슬픈 심정을 잘 보여주는 일들은 고개만 들면 언제든지 보여 지기 일쑤입니다. 옛날 어느 장군이 외아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전쟁터를 누비는 동안 그 외아들이 병으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장군의 슬픈 심경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죽음이 있으려거든 아예 태어남이 없는 것만 못하니

속상한 이 마음 어찌 말로 다 표현할까

너 어린 소년을 묻고 나니 산도 사나워 무섭게 보이고

사람의 외아들을 뺏어가니 귀신도 알아보지 못하도다.

산에 핀 꽃 한송이를 무덤에 꽂고 가니

아빠 아빠 부르지 말고 이 꽃보고 놀아라.

꽃이 피고 꽃이 지니 타향에서 눈물ियो.

구름가고 구름오니 고국 생각 간절하다.

집에 돌아가면 네 소식을 물을 것이니

빨리 말할까 더디 말할까 어찌 답해야 할 건가.

이번 결계대중들은 이 같은 절박하고도 절박한 생사문제를 짊어지고 90 일 동안 용맹 정진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진리를 위해서는 이 한 몸의 목숨을 초개같이 여겨서 자신을 잊었던 것이니 저 달마대사의 법을 이은 2 조 혜가대사는 눈 속에 팔뚝을 꿰어 구도의 정성을 보였으며 6 조 혜능은 8 개월 동안 방아를 찼습니다. 왕 화상은 법을 배우고자 불화로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포모(布毛)는 스승 조과선사를 16 년이나 시봉하였으나 법을 얻어 듣지 못하였습니다. 자명선사는 밤에 자지 않고 정진하다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다리를 찔렀으며 도안선사는 20 년간을 홀로 방에서 두문불출하였으며 이암선사는 공부하다가 하루혜가 지면 “오늘도 이와 같이 헛되이 보냈구나” 하고 탄식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설봉스님은 밥을 짓고 물통을 저 나르며 원두소임을 맡은 암두스님과 바느질을 한 휴산스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동산스님에게 아홉 번 오르고 투자스님께 세 번이나 갔었습니다. 남악스님은 6 조 스님에게 8 년을 시봉하였으며 능스님은 설봉스님의 회상에서 15 년 동안 좌복을 7 개나 떨어뜨렸습니다.

당나라 때의 영운선사는 30 년을 참구하였고, 용천스님은 40 년을 있었으며 덕산스님과 임제스님도 오랜 세월을 스승의 문하에서 참구하고서야,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않은데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난행 고행의 수행이라 하더라도 한 조각 티 없는 진여일심은 여러분 본분 남자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화두 속에 갖추어 있으니 그 무거운 짐을 이번 안거 중에 내려놓았습니까.

운문등임근벽공(雲門登臨近碧空) / 운문암 오르나니 푸른 하늘이 가까운데

고저열수일모중(高低列岵一眸中) / 벌려선 높고 낮은 산이 한 눈 안에 들어온다.

칠하야월단단백(七夏夜月白) / 칠월백중 밤의 달은 둥글게 희고 밝고

팔만암등점점홍(八萬庵燈點點紅) / 팔만의 암자 등불은 점점이 붉고 붉다.

승좌계화방초우(僧坐桂花芳草雨) / 스님은 계수나무 꽃비 속에 앉았는데

종명송탑석양풍(鐘鳴松榻夕陽風) / 범종소리 소나무榻(榻)의 석양 바람에 울린다.

군산진입연농처(群山盡入烟籠處) / 온갖 산들이 모두 연기 낀 곳에 드는데

귀로행심수향서(歸路行尋水向西) / 돌아가는 길을 찾아 가노니 서쪽을 향해 흐른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스님의 사리, 과학적 증명 가능할까?

우리나라 역대 고승 가운데 사리가 나온 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1993 년 조계종 성철 종정의 다비식에서는 무려 200 여과(顆)의 사리가 나왔다고 발표됐다. 이 숫자는 석가모니 이래 가장 많은 사리라고 알려진다. 입적한 큰 스님의 다비식 후에 찾을 수 있다는 사리는 과연 무엇일까.

사리는 '신체'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사리라(Sarira)'에서 유래했다. 대개 불심이 충만한 불자들의 몸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인체를 화장하고 난 뒤에 남겨진 뼈 전체 또는 가루가 된 뿔조각까지 포괄하기도 한다. 그 종류는 다비 전의 전신사리(全身舍利)와 다비 후의 쇠신사리(碎身舍利)로 구분되는데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황금색, 검은 색, 붉은색, 흰색 등이 뒤섞여 영롱한 빛을 낸다.

사리에 대한 세인들의 의구심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로 모아진다. 사실 이 질문처럼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 사리 자체가 불교라는 종교와 접목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게 진실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몇몇 가설을 내놓고 있다. 먼저 사리는 조개가 만드는 진주와 같다는 설이 있다. 인체에 침입한 불순물을 특정 물질들이 둘러싸면서 사리가 됐다는 것. 그런데 이 가설은 한 사람의 몸에서 수많은 사리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인가?

의학계의 경우 사리를 담석, 결석과 유사한 물질로 예상 한다. 정좌한 채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수행하는 스님들은 영양상태나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해 결석이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리가 고온의 불길에도 견디는 무기물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결석은 고통이 수반되는 반면 스님들은 생전에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어 타당성이 낮다. 최근 이러한 추정들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소식이 알려졌다. 인하대학교 임형빈 박사가 '백금요법연구회'로부터 사리 1 과를 기증받아 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연구회는 1993년 입적한 경기도 평택 소재 모 사찰의 한 고승으로부터 수습된 사리 2 과 중 1 과를 임 박사에게 제공했다. 그 고승은 사후에 사리가 나오면 유용한 일에 써달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어쨌든 임 박사의 분석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임 박사에 따르면 지름 0.5 cm의 사리에서 방사성 원소인 프로트악티늄, 리튬을 비롯해 티타늄, 나트륨, 크롬, 마그네슘, 칼슘, 인산, 산화알루미늄, 불소, 산화규소 등 12종의 원소가 검출됐다. 이 원소의 대부분은 뼈 성분과 비슷했지만 프로트악티늄, 리튬, 티타늄 등은 뼈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물질이다.

백번 양보해서 녹는점이 1,200℃가 넘는 프로트악티늄과 티타늄은 다비의 불길을 견디고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리튬은 녹는점이 186℃에 불과해 다른 원소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방사선원소를 상온에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 프로트악티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가사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리의 경도(硬度)도 상상을 초월했다. 경도가 1만 5,000 파운드로 나타나 1만 2,000 파운드인 강철보다 단단했던 것. 결석은 주성분이 칼슘, 망간, 철, 인 등이고 고열에 불타 없어지며, 경도도 높지 않으므로 적어도 결석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물론 이 연구가 단 1 과의 사리를 분석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불교계에서 사리라고 발표되는 것에는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로움이 들어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010년 6월 25일 파퓰러사이언스-한국일보에서 발췌

"스님들 신뢰도·청렴성 낮아"

불학연구소, 조계종 스님 1000명 대상 설문조사

한국사회에서 조계종 스님들은 타 종교 성직자들에 비해 신뢰도와 이미지· 사회적 영향력· 전문성 등이 낮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불교가 당면한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신뢰회복을 꼽았고 청정한 계행의 실천을 승려가 갖춰야 할 중요 자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계종 스님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한국사회에서 스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대답에 비해 10% 이상이 높았다.

스님들은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종교로 개신교(64.3%)와 가톨릭(18.4%) 다음으로 불교(16.4%)를 선택했다. 또 한국불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신뢰회복(50.1%)을, 이웃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제기되는 과제로는 불교의 정체성 강화(54.2%)를 꼽았다.

승려의 신뢰도 전문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많았다. 특히 스님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높다(13%)'는 답이 '낮다(49.7)'는 답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승가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승려 개인의 자질 함양(29.4%)과 양질의 승려교육(28.9%), 출가정신의 강화(23.2%) 순서로 답했다. 결국 스스로 교육과 출가정신 회복을 통해 청정한 승가를 이룰 때 사회적인 위상도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불교운동(60.4%)과 복지 구호사업(23.9%), 환경보호(20.7%)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55%)이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종교갈등과 종교편향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81%가 '한국사회의 종교간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고, 이 중 개신교와 불교의 갈등(75.3%)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포교 방법으로는 '봉사와 자비행의 실천(43.1%)' '신도교육(19.6%)' 등을 선호했으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양성(44.7%)'과 '중단의 국제역량 강화(22.2%)'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존경하는 스님은 원효스님(80명)·성철스님(57명)·달라이 라마(23명) 순이었으며, 타 종교인으로는 고 김수환 추기경(63명)·테레사 수녀(34명)가 압도적이었다.

-충북일보에서 발췌-

호킹박사, 새 저서 통해 무신론 주장 “현대 물리학, 신을 위한 자리 안남겨”

“현대 물리학은 우주 창조에서 신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영국의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사진)는 찰스 다윈이 생물학에서 창조자의 필요를 제거했듯이 새로운 물리학 이론들이 우주를 위한 창조자의 역할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발행하는 과학월간지 유레카는 2일 곧 출간될 호킹 박사의 책 ‘거대한 설계(Grand Design)’의 일부를 발췌해 독점 게재했다. 창조론자의 지적 설계(Intellectual Design)를 염두에 둔 듯한 제목의 이 책에서 호킹 박사는 “우주에는 창조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노”라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빅뱅(대폭발)은 물리학적 법칙의 불가피한 결과이지 신의 손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無)로부터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 같은 자발적인 창조가 무가 아닌 유(有), 즉 우주와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호킹 박사는 “종이에 불을 붙여 우주를 폭발시키는 신을 불러들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새 책의 내용은 호킹 박사가 과거 종교에 관해 표명했던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는 1988년 쓴 베스트셀러 ‘시간의 짧은 역사’(국내 번역본은 ‘시간의 역사’)에서 창조자 신이 우주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당시 책에서 “우리가 완벽한 이론을 발견한다면 그 이론은 인간 이성의 최후 승리가 될 것”이라며 “그때 우리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호킹 박사는 미국 물리학자 레너드 물로디노프와 공저로 9일 출간될 새 책에서 ‘우주는 혼돈(chaos)으로부터 생겨날 수 없고 따라서 신에 의해 창조됐음이 틀림없다’는 아이작 뉴턴 경의 신념을 무너뜨린다. 호킹 박사는 “최초의 일격은 1992년 태양과 다른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이 관찰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구라는 행성이 갖고 있는 조건의 절묘한 일치, 다시 말해 하나의 태양,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와 태양 질량의 운 좋은 결합이라는 조건이 지구가 인간을 위해 주의 깊게 설계됐다는 증거로서는 과거보다 훨씬 덜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와 같은 다른 행성만이 아니라 다른 우주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들어진 신’이란 책을 써 무신론을 옹호한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 책의 내용을 단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인간만이 아니라 바로 그 자연을 위한 다윈주의로 묘사하면서 출간을 환영했다. 도킨스는 “나는 물리학의 세부 내용을 잘 모르지만 나 역시 (호킹 박사와) 똑같은 것을 가정해 왔다”고 말했다.

호킹 박사는 물리학이 모든 것의 이론, 자연의 모든 특성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구성할 순간에 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한 이론은 아인슈타인 이후 모든 물리학자가 추구해온 성배였지만 지금까지 원자 이하의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이론과 중력이론을 화해시키지 못했다. 호킹 박사는 “일종의 끈 이론(string theory)인 M 이론이 이 목표를 이룰 것”이라며 “M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고자 했던 통일 이론”이라고 말했다.



2010년 9월 3일 동아일보에서 발췌

불기 2554 년 (2010 년) 우란분(백중) 천도기도 법회

8 월 22 일 넷째 주 일요일 10 시 30 분에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불국사)에서 신도님들의 정성을 모아 71 위 위패를 모시고 백중 천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양력 8 월 24 일 (음력 7 월 15 일)은 백중 (우란분절)입니다. 부다나라 (불국사)에서는 신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양력 8 월 넷째주 일요일인 8 월 22 일날 백중 (우란분절) 천도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날 선망부모,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71 위 위패를 모시고 봉행했습니다.

우란분경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에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이에 불기 2554 년 우란분절을 기려 저희 불국사에서도 지극한 믿음으로 효도를 실천하고자 살아 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친족 및 유자령(流子靈:유산된 태아의 영혼)영가 및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8 월 22 일 넷째주 일요일에 천도기도 및 천도제사를 올렸습니다. 우란분절 천도제는 출가자의 수행 공덕과 보시자의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증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자비사상이 묻어나는 전통 의식인 것입니다.

삶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어 널리 이웃에게도 선망조상 및 유주무주 고훈 영가천도의 귀중함을 권선 하시고 이웃과 함께 불사인연 나누시어 나와 내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그 인연 공덕으로 무량 복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불기 2554 년 (2010 년) 우란분(백중) 천도기도 동참영가 명단

* 지면 관계상 주소를 생략했습니다. 혹시 누락되신 신도님이 계시면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불국사)로 연락 바랍니다.

1. 망 강석주 대종사 선영 영가 (비구니 연암 선각 복위), 2.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애혼고혼 각 열위 일체 인연 영가 (비구니 연암 선각 복위), 3. 망 시부 남평후인 문해경 영가, 망 시모 인천유인 채정조 영가 (행효녀 무량화 문봉순 복위)
- , 4. 망 시숙부 남평후인 문재경 영가, 망 시숙모 평산유인 신갑연 영가 (행효녀 무량화 문봉순 복위), 5. 망 부 남평후인 흥법 문정모 영가 (행효자 문성훈 복위), 6. 망 조부 청풍후인 김유근 영가, 망 조모 인동유인 장소녀 영가, 망 부 상산후인 김금진 영가 (행효녀 김동희 복위), 7. 망 풍양조씨 일문권숙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조남국 복위), 8. 망 풍양조씨 며느리 일체 영가 (행효녀 현심행 김철아 복위), 9. 망 시부 James Joseph Miller, 망 시모 Judith N Miller (행효녀 여래성 김선영 복위), 10. 망 선망부모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Debra Tak 복위), 11. 망모 평애유인 황지영 영가 (행효자 안재현 복위), 12. 망 선망부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Lawson Robinson 복위), 13. 망 안동권씨 일체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성락 권혁만 복위), 14. 망 부 전주 후인 이귀남 영가, 망 모 남원 유인 양선산 영가, 망 언니 전주 유인 이호섭 영가 (행효녀 이호임 복위), 15. 망 부 밀양후인 박일선 영가, 망 형 밀양후인 박정신 영가, 망 동생 밀양후인 박정수 영가 (행효자 박정근 복위), 16. 망 조부 하양 후인 허수근 영가, 망 조모 여남석 영가, 망 부 하양 후인 허봉선 영가, 망 빙부 경주후인 김정호 영가, 망 매 하양유인 허창분 영가 (행효자 허정석 (근일) 복위), 17. 망 부 진양후인 강석모 영가 (행효자 강용택 복위), 18. 망 모 정씨 유인 정명단 영가 (행효자 김추윤 복위), 19. 망 조모 금릉유인 김순애 영가 (행효자 김추윤 복위), 20. 망 백부 김해후인 김중찬 영가 (행효자 김추윤 복위), 21. 망 부 원주후인 원용기 영가, 망 백모 달성유인 서병희 영가 (행효자 원상희 복위), 22. 망 수자 두 분 영가 (행효녀 임소영 복위), 23. 망 한성이씨 일체 인연 영가, 망 멧돼지 영가 (행효자 도광 이찬혁 복위), 24. 망 선망 부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김용오 복위), 25. 망 선망 부모 달성배씨 일체 영가 (행효자 배제현 복위), 26. 망 선망 부모 탐진 최씨 일체 영가 (행효녀 최문선 복위), 27. 망 오빠 탐진후인 최치남 영가 (행효녀 최문선 복위), 28. 망 밀양 박씨 영가 일동 (행효자 박대경 복위), 29. 망 김해 김씨 영가 일동 (행효녀 백련화 김효례 복위), 30. 망 창원 황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황현식 복위), 31. 망 밀양박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법왕자 박계영 복위), 32. 망 부 은진후인 송호창 영가 (행효자 고려 송보영 복위), 33. 망 부 진주후인 강대학 영가 (행효녀 극락심 강효정 복위), 34. 망 부 고무래 후인 정득조 영가 (행효자 정순복 복위), 35. 망 나주정씨 정시홍 영가, 망 도광김씨 김성례 영가 (행효녀 정정순 복위), 36. 망 조부 이씨후인 이택권 영가, 망 조모 박씨유인 박금덕 영가, 망 부 이씨후인 이인영 영가 (행효자 이동엽 복위), 37. 망 외조부 김씨후인 김재석 영가, 망 외조모 박씨유인 박정녀 영가 (행효녀 이은숙 복위), 38. 망 조부 안동후인 김동균 영가, 망 조모 인동유인 장엄전 영가 (행효자 김태성 복위), 39. 망 조부 함평후인 이영범 영가, 망 조모 금성유인 나연례 영가 (행효녀 수정화 이금주 복위), 40.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백유상 복위), 41. 망 모 전주유인 이득천 영가 (행효녀 류정아 복위), 42. 망 고흥유씨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유해석 복위), 43.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이경주 복위), 44.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민정기 복위), 45.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송혜숙 복위), 46.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이범도 복위), 47.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조화숙 복위), 48. 망 부 평산후인 신길철 영가 (행효자 신동운 복위), 49.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김태희 복위), 50.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박태임 복위), 51. 망 조부 밀양후인 손순근 영가, 망 조모 경주유인 최선봉 영가, 망 부 밀양후인 손윤진 영가, 망 숙부 밀양후인 손금용 영가 (행효자 손영찬 복위), 52. 망 선망부모 유주무주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김효진 복위), 53. 망 조부 박정범 영가, 망 조모 변옥수 영가, 망 외삼촌 김학현 영가, 망 외사촌 김영보 영가, 망 수자령 3 위 영가 (행효녀 수정심 박영숙 복위), 54. 망 인동유인 장지영 영가 (부다나라 기부), 55. 망 시조부 이기정 영가, 망 조모 함하지 영가, 망 자 김 입수 영가 (행효자 이연주 복위), 56. 망 친정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양주연 복위), 57. 망 업부 사천후인 목덕상 영가 (행효자 목영옥 복위), 58. 망 자모 해주유인 오임순 영가 (행효자 목영옥 복위), 59. 망 자모 순홍유인

안상순 영가 (행효자 목영옥 복위), 60. 망 자사 사친후인 목문균 영가 (행효자 목영옥 복위), 61. 망 수자령 2 위 영가 (행효자 목영옥 복위), 62. 망 엄부 파평후인 윤영수 영가 (행효녀 선법장 윤선정 복위), 63. 망 자모 김해유인 김석순 영가 (행효녀 선법장 윤선정 복위), 64. 망 자모 유인조씨 영가 (행효녀 선법장 윤선정 복위), 65. 망 제 파평후인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선법장 윤선정 복위), 66. 망 선망 부모 유주 무주 애혼 고훈 각 열위 일체 인연 영가 (행효자 이용성 복위), 67. 망 선망 부모 유주무주 애혼 고훈 각 열위 일체 인연 영가 (행효녀 신숙례 복위), 68. 망 형 남양후인 홍대경 영가 (행효자 홍대선 복위), 69. 망 부 연일후인 정지학 영가, 망 오빠 연인후인 정원조 영가 (행효녀 청정형 정혜주 복위), 70. 망 김조 진도 강아지 영가 (김정훈 기부), 71. 산천초목 유주무주 애혼 일체영가. 이상 71 위 위패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9월 22일이 추석이라 9월 19일 셋째주 일요일 법회 시작하기 30분전에 송편만들기가 있습니다. 송편을 만든후에 정기법회에 들어가니 송편만드는 경험을 하시고 싶은 신도님이나 자녀들은 10시 30분까지 사찰로 와 주십시오.
- 10월 3일 첫째주에 야외법회가 있습니다. Eckert's Farm 에서 사과도 따고 뷔페식당에서 점심공양도 있습니다. 농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동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회시간에 공지 하겠습니다.
- 8월 22일 네째 주 일요일 10시 30분에 백중 천도 법회를 71 위 영가 위패를 모시고 선망부보,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경건하고 여법하게 봉행 했습니다. 미국에서 동참하신 영가 기도 동참금은 \$1,800 불 이고, 과일 및 꽃값등 제반비용에 사용된 총 경비는 \$86.60. 불 입니다. 경비를 제외한 \$1,713.40 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010 백중기도 현재까지 누적된 노인복지 기금: \$5,401.31)
-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시카고 소재 봉불사 주지 관호스님 및 은사스님, 멕시코 소재 한국사찰 주지스님 및 세분의 비구니 스님들이 사찰을 방문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다나라를 방문해주신 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식: 10월 둘째주 일요일에 야외법회를 갖습니다. 장소, 시간 및 자세한 사항은 10월 둘째주 정기법회때 공지하겠습니다 .
- 2011년 달력발사를 받습니다. 불광출판사에서 달력 400 부를 프린트하는 비용 및 신도님 가정으로 발송비용 등 제반비용이 약 \$1,000.00 이 소요 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은 부다나라 (불국사) 나 한국 부다나라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2010년 8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99번 신미생 조민정, 400번 임신생 조은정.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